“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대 선발 확대 검토”

민주 이낙연 대표, 부안 개최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공공기관 지역 출신자 30%에 타지역 지방대 출신 20% 추가

지역뉴딜 포함 균형발전에 연기금 활용 방안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30%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해 20%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체 50%가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그 중 30%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20%는 타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온 분이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멀리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도권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0% 세율로 법인세를 아예 받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한 차등적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있는 분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위직 공무원 지방할당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김성주 의원이 제안을 줬는데 지역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30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전북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국서 선보이는 ‘전북 홍보세트’

도 중국사무소, 내일까지 투자무역박람회 전북관 운영

태권도 · 한복부터 새만금까지 지역 알리는데 ‘중점’

전북도 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가 전북의 다양한 매력 알리기에 나섰다.

중국사무소는 지난달 30일부터 내일(11월 3일)까지 장쑤성 옌청에서 열리는 ‘제2회 한중투자무역박람회’에 전북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관은 태권도 · 한지 · 한복체험 등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가장 한국적인 모습부터, 새만금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미래 이미지까지 전통과 미래가 함께 숨 쉬는 전북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아시아의 강호 전북현대축구단의 사인볼 전시 및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아시아 축구 중심 전북도’의 역동성도 함께 표현했다.

중국사무소는 주 부스와 포토존, 한지 체험존 등 총 세 곳의 홍보공간을 마련해 한복 및 태권도복 체험, 태권도격파, 포토존 사진찍기, 한지로 된 전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지인형과 한복향낭, 목재전등, 남원 옻칠컵, 전주비빔밥 시계 등 한국적인 느낌의 전통공예품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북도 중국사무소 SNS계정(웨이보, 틱톡)을 팔로우한 후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지속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해, 향후 전북도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과 함께 한중산업단지로 지정된 옌청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개최되는 행사로 장하성 주중국대사가 참관했다.

특히 장 대사는 전북관을 방문해 내장산 단풍, 태권도 격파 체험 및 한지 체험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유호상 기자

“지방의원들의 전문 연수 절대 필요”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사회적 문제 야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촉구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2020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송지용 전북도의회장이 제안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를 채택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역량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반해 지방의원 60%이상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초선의원이어서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어 “더욱이 지방분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 연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장협의회 설립 초기부터 독자적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부담과 운영주체, 부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와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지자체중 46.1%에 달하는 105곳이 소멸위기지역”이라며, “지방소멸이 실제 발생할 경우 지역의 역사성과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등 사회 · 경제 · 문화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환복위, 경기 수원서 복지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달 29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복지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대선공약이다.

전북은 현재 ‘전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며, 2021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북지역보다 먼저 운영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서비스원 운영에 따른 장점과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전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이를 반영해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시설 위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민간기관 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관련 상황에 대해 1:1 질의답변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설립 예정인 ‘전북도사회서비스원’의 준비와 운영 전반에 시사점들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지역서비스 불균형 해소, 공공성 강화와 민간기관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농산경위, 행감대비 연찬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달 29~30일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는 오는 9일 개회하는 제377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실.국별 신규 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내장산생태탐방원으로 자리를 옮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심사 자료 및 질의 방향을 검토하고 토론을 실시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와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